

주민생활협동조합 이야기

장 건 (성남주민교회 장로, 주민생협이사)

주민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삶을 뛰어 가는 생활공동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주민공동체 목표성구, 눅 4:18-19)

주민생활협동조합(이하 주민생협)은 성남의 한 작은 민중교회인 ‘주민과 함께 사는 주민공동체’(담임목사:이해학)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세계보전을 위한 선교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기계적 산업화 문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류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라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 왔다. 이러한 반(反)생명적인 삶을 가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갈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주민공동체가 나아 갈 방향이 바로 살림의 문화를 추구하는 ‘생명문화창조운동’임을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명의 보호운동/생활의 개선운동/사회의 발전운동'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주민생협의 출발

주민생협(<http://www.todguq.or.kr>)은 1989년 주민교회 공동의회에서 생활협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락 집사)를 구성하고, 주민신협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지원으로 교회 내에 조그만 공간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민교회 신도 34세대가 조합원이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이천애농회와 김장배추 직거래를 하면서 한살림을 통한 달걀, 두부 등 몇 가지의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본격적으로 생협운동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 청년 중에 한신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생협운동에 몸을 던진 최민경 집사를 1991년 일본의 생활클럽생협연합회로 1년 간 연수를 보내 생협 운영과 지역사회운동을 경험하게 한 후부터이다.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 온 최민경 집사는 생활재의 조합원 개별 공급을 지양하고 사무국의 인력운영과 시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예약주문 공동구입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재조직 하였는데 생협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3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반(班)을 만들어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생협을 지역에 알리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일들은 대부분 공급 트럭을 타고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집으로 이웃들을 불러모아 안전한 생협먹거리 시식회와 생협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면서 공동반을 꾸려 나갔다. 그러한 준비와 노력으로 점차 성남 지역사회에 생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1993년 1월 13일 정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 생활공동체 '주민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원 자주관리체제인 이사회(초대이사장: 장 건장로)를 구성하였다. 그 후 1999년 8월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재경부의 입법 제청으로 국회에서 제정, 발효되어 2000년 3월 17

일에 새로운 생협법에 따라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재창립하였다. 주민생협은 2003년 12월말 현재 2026명의 조합원들이 도·농간 유통구조의 개선, 지속가능한 생산의 안정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생협다운 지역 생협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남시, 분당, 용인, 수지, 광주 등지에서 10개의 마을모임과 35개의 공동반을 형성하여 생활,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주민생협은 조합원의 힘으로 운영된다

“생협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생활개선, 건전한 생활문화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연생태계 질서를 보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인들이 함께 만드는 자발적인 자조, 자립, 자치적인 생활협동조직이다.”



총회 석상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조합원들

주민생협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한 9명의 이사들이 이사회(이사장: 김해숙)를 구성하여 생협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감사회(2명)와 사업 집행 실무는 상무이사 1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생협 조합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99년부터 생협 활동에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조합원을 발굴하여 상근활동가(현재 3명)로서 조합원관리 및 매장관리를 전담케 하여 사무국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위원회가 있다. 생활재위원회(생활재는 생협의 물품을 일컬음)는 조합원 가족의 밥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놓일 수 있도록 품질 및 안전성 검사 확인, 생활재 개발과 개선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매월 2회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생활재 토론회를 가지고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회보위원회는 생협활동 소식과 소박하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회보를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월 발행하고 있다. 새내기 조합원 교육 등 생협 내의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각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교육위원회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형태를 조합원과 함께 지역에서 실현해 보고자 애쓰는 환경위원회는 일반세계 사용을 줄이고 환경적인 생협세계 사용을 위한 교육활동과 유전자조작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자료집 발간, 대안생리대 사용, 생활재 포장용기의 재사용 활동 등을 통해 생활과 환경 운동을 꾸준히 모색 실천하고 있다.

제작년 총회에서는 주민생협 활동의 중점과제를 '마을만들기'로 정하고 마을위원회를 설치하여 점차 개인화 되어 가는 공동반을 조합원끼리 의사소통의 마당으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마을로 만드는 활동 -마을학교, 품앗이 문화강좌, 어린이 생태모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10여 개의 '마을지기'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

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확산을 통한 생협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엄마들의 품앗이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인 ‘창조학교’가 1995년 문을 열어 제도 교육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가르치며 그들만의 쉼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자연 안으로 나들이’, ‘전래문화 익히기’ 그리고 서로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배우게 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덩더쿵어린이집’을 2001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덩더쿵어린이집은 작년에 생협 교육 센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공간을 독립하여 분당 정자동 지역에서 공동육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2001년에는 주민생협 유기농판매장을 열었다.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임대료)을 외부 차입 없이 조합원들이 스스로 특별 출자하여 분당 정자동에 매장을 임대, 생협의 생활재가 지역 속으로 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생활재 공동구입 활동은 생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2002년 봄 어려움에 빠진 한 생산자를 주민생협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도와주었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달걀을 공급하던 농가에서 닭 4백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주민생협은 즉시 긴급이사회를 열어 앞으로 공급받을 달걀 값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돈으로 닭을 새로 구입한 생산자는 곧 질 좋은 달걀을 다시 공급할 수 있었다. 조합원과 생산자 간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주민생협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선택한 도구는 공동구입이다.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해 주는 진정한 먹거리를 이웃과 힘을 모아 구매함으로써 거대 자본의 횡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윤을 중심으로 한 경쟁구조에서 빠져나와 한 인간의 자유와 행복,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민생협은 수도권에 위치한 6개 지역생협과 연대하여 1997년에 생협수도권연합회를 건설, 생활재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생협수도권연합회는 전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지를 발굴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 축,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안전한 가공식품 4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구입 방식은 매년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의 계획생산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인 것이다.

지난 IMF 이후 생협은 정치적 혼란과 저성장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공동구입-계획소비-활동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였다. 주민생협은 지난 한 해 동안 19억9천만 원을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27억7천만 원의 이용목표액을 설정하고 공동구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사회성 있는 생활재를 개발하고 생활재 생산과정과 내용을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생산자와의 대화, 각종 학습회 등을 열어 갈 계획이다.

생협인이 된다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협에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실천을 담아내는 자치 소모임 동아리 활동들이 있다. '만돌린반', 자연관찰 가족동아리 '참나무와 도토리' 수다를 떠는 '우물가 놀이터' '아토피 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생협운동을 하면서 만나 형제처럼 지내는 '좋은 이웃' 가족모임이 있으며 환경캠프, 생산지 가을걷이축제와 일손 돕기, 건강한 삶을 위한 어머니학교, 생태기행 등등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도 함께 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만들어 가는 어린이 교육의 장 '창조학교'와 '덩더쿵어린이집'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고깔 모자를 만드는데 자기는 고깔모자에 애꾸눈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혼났다고 했다. 아이가 다른 잘못을 했겠지... 그냥 그렇게 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글을 쓰면 글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자유롭고 풍부하던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틀에 박힌 글과 그림이 가득하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피아노, 태권도, 바이올린, 학습지... 불안해서 여러 가지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교육이 가장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한 해답 없이 1995년 겨울에 창조학교 간판을 걸었다.”

창조학교는 주민생협의 조합원들이 만들어 낸 재생산 가능한 교육 생활제이다

주민생협 내의 조합원 교육활동 중 창조학교는 1995년 12월 조합원들이 교육공동체를 꿈꾸며 대안교육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자신과 이웃의 아이들을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 고향이 없는 아이들, 추억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구석과 빈터'로써 동네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소중한 보금자리요, 교육의 중요한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1996년 봄부터 시작한 창조체험교실과 과학탐구교실, 박물관기행, 생태학교, 감상과 토론 등의 학기 중 프로그램과 여름, 겨울 계절캠프, 동네학교, 마당극교실 등을 열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 때마다 생협 조합원 아이들과 함께 한 계절캠프는 해를 거듭하면서 생산자인 흥성풀무생협의 조합원과 그들의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는 도·농 사오정캠프(사랑이 오가는 정이 있는 캠프)로 발전하였



창조학교 어린이들의 탄전 탐사활동

다. 학기 중 창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갯벌, 동굴, 철새탐사 등을 하였으며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인 어린이 날 행사나 마을 단오행사를 개최하여 생협과 창조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 모든 활동들은 어머니이자 생협의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꾸렸으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창조의 어머니들은 생협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창조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미취학 어린이의 생활과 교육을 생각하는 출발선에서 유치원 만들기를 함께 고민하다, 2001년 교육센터의 마련과 때를 같이하여 '덩더쿵어린이집'을 시작하였다. 덩더쿵어린이집은 주민생협의 조합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이 상품화되고 경쟁적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엄마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반나절 공동육아 공간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감성을 키워 생협의 이념인 생명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당센터:지역 속에 더욱 튼튼히 뿌리내린 조합원들의 마실터

“생협이 단순히 농산물 공동구매에 머물 경우 실패하기 쉽다”며 “생협의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함께 자녀교육문제 등 피부에 와 닿는 분야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김해숙 이사장은 말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합원들의 특별출자 3,000만 원과 주민신협의 지원금 5,000만 원을 조성해 분당 정자동에 25평 규모의 분당지역센터를 97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창조학교 프로그램, 어머니들을 위한 인형극강습, 어린이 음악교실, 미술교실, 어머니 만들린교실, 각종 위원회회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원 지킴이들이 이 공간을 지역 주부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생협 독립건물을 마련하여 유기농산물판매장, 회의실, 카페, 창조학교와 덩더쿵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주민생협의 오늘은 초기 주민교회 안에서 시작한 생명문화창조운동에 비하여 생협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다. 반면에 조합원들의 활동내용은 먹거리 이용과 교육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해왔던 이전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선교사업과 목표에 부응하고자 활동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지역의 조합원들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고 생활재를 이용하는 조합원으로서 한계를 가지

고 있기에 주민생협의 정체성(이념)과 생활협동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대하여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의 생협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회원-조합원활동가의 노동과 직원활동가 노동의 차이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조합원활동가의 역할 주기가 갈수록 짧아져 가는 상황 속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 동기 유발은 조합원활동가 풀(pool)의 형성과 리더그룹의 양성에 따라, 이후 생협운동의 지속성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리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생협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협운동은 주체-조합원, 임원, 직원-들의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의 토대 위에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십여 년의 생협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대원칙이라는 점에는 생각의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생협을 통한 생명문화창조운동은 보다 더 도·농간,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화와 시장경제라는 현실과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협동조합의 원칙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 있다. FTA 협약체결로 인한 농업시장의 확대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우리 농업의 친환경농업(유기농업)으로의 확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전국 각지에서 생협운동을 들불처럼 일으켜 우리 농업 살림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주민생협 조직 현황

임원: 이사장(김해숙), 부이사장(유순주), 상무이사(최민경)
 이사(장 건, 이현배, 임오목, 주현수, 이민수, 정선훈)
 감사(김향연, 최복희)

직원 및 규모

사무국: 9명(상근 직원 6명/상근조합원 활동가 3명)

매 장: 1개소

조합원수: 2,026명(2003년도 말)

총자산액: 320,000,000원

조직 및 기구

마을모임: 10개 마을

공동반: 35개 공동반

위원회: 생활재위원회, 교육위원회, 마을위원회, 회보위원회, 환경위원회

창조학교: 초등학생 35명

덩더쿵어린이집: 어린이 15명(교사2명)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취지문

주민생활협동조합은 성남의 한 작은 교회인 주민교회에서 생명문화창조운동으로 시작되어 지난 10년 동안 성남지역과 인근지역으로 뿌리를 내리며 우리들의 먹거리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되면서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는 자율적이며 더불어 사는 주민생활협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안전한 먹거리와 생활재를 통하여 농촌과 땅을 살리는 운동이며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정치구조 속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산물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우리의 생

활을 지키며 개선하려고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은 자발적, 민주적 관리를 원칙으로 한 조직체로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자주적인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상실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돕고 더불어 나누며 책임지는 가운데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재의 공동구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우리들의 생활가치가 실현되도록, 즉 우리에게 필요한 주민복지와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스스로 실현해 나가며 이것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생협운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의 지향과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 과시적인 소비와 문화적인 허영심을 극복하는데 이 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삶의 질적인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의 행복으로 실현하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건강하게 가꿔가며 아이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에 우리의 삶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생협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의 만남과 아시아와 세계의 생협인들과 연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운동의 성과를 모든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과 함께 주민생활협동조합의 새로운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2000년 3월 17일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대표 장 건